2승 이창호가 4승 박영훈보다 상금이 많다?

■바둑 단체전 상금 어떻게 나누가

농심배·정관장배 기본급+승리+우승 결정수당

한국리그 상금중 80% 균등, 20%는 자율분배

단체전 상금은 대회마다 복잡한 분배 방식을 통해 참가 프로기사들에게 배분된다. 사진은 제2회 지지옥션배에서 5연승을 거둔 차민수(오른쪽) 5단이 이민진 5단과 대국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최근 차민수 4단이 제2회 지지옥션배에서 쟁쟁한 여성대표 5명을 연파했다. 이 대회는 남·녀팀의 각 기사들이 이기면 계속 경기를 하는 연승전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우승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상대를 꺾는 기사도 있지만 단 한게임도 나서지 않은 선수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단체전의 상금은 어떻게 나눌까?.

국내에는 지지옥션배, 정관장배, 농심배, 한국바둑리그 등 4개의 기전이 단체전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전인 한국바둑리그는 우승 상금 2억7천만원에 각 팀별 선수 6명으로 구성된다. 한·중·일 3개국 단체 연승전인 농심배는 우승 상금 1억5천만원에 팀당 선수는 5명이다. 정관장배는 우승 상금 7천500만원에 선수는 역시 5명이다. 지지옥션배는 7천만원에 팀당 12명.

이처럼 단체로 경기를 펼치지만 선수에 따라 연승을 펼치는 등 활약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금 배분 과정도 복잡하다.

농심배는 우승 상금 1억5천만원 중 5명의 선수가 기본급으로 각자 2천400만원씩 나눠 가진다. 나머지는 승수에 따라서 분배되고 최종 우승을 결정지은 선수에게는 결정금이 지급된다. 제8회 농심배를 예로 들면 이창호는 기본수당 2천400만원에 우승 결정수당 및 승리수당 2천만원을 포함해 총 4천400만원을 받았다. 4승을 올린 박영훈 9단은 기본수당 이외에 승리수당 1천만원을 포함해 3천400만원을 받았다.

대회 규정상 3연승부터 1천만원씩 지급되는 연승 상금 2천만원을 합치면 5천400만원이지만 이것은 보너스이니 우승 상금 분배와는 별개다. 1승도 거두지 못한 조훈현 9단, 최철한 9단, 원성진 9단은 기본수당 2천400만원씩만 받았다.

4승을 올린 박영훈보다 2승을 거둔 이창호가 승리수당이 더 많은 이유는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연승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수록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정관장배는 대회방식이 농심배와 같기 때문에 상금 분배도 농심배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제6회 정관장배의 우승 상금 7천500만원 중 기본 수당은 각자 1천200만원씩이었다. 승리수당은 총액이 1천200만원이다. 우승까지 한국이 거둔 승수는 총 7승이니 1승당 1천714만285원의 상금이 분배된다. 거기에 우승결정 수당이 300만원이다.

이민진은 기본수당 1천200만원에 승리수당 514만2천855원(3승), 끝내기수당 300만원 등 총 2천14만2천855원을 받았다. 2승을 한 이하진 3단과 이슬아 초단은 기본수당 1천200만원에 승리수당 342만8천570원을 합해 1천542만8천570원씩 받았다.

반면 지지옥션배는 똑같이 나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시니어팀 12명은 상금 5천500만원(2기부터 7천만원으로 인상)을 12등분했다.

4위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한국리그는 좀 더 복잡하다. 80%는 균등 분배, 20%는 팀별로 자율분배한다.

지난해 1위팀 영남일보는 2억5천만원 중 자율분배 몫인 5천만원을 선수 6명에게 고루 분배했다. 결국 전액을 6등분한 셈이며, 개인당 4천166만6천666원을 받았다. 2위 신성건설은 팀기여도에 따라 A급~C급으로 나눠 차등분배했다.

1억5천만원의 상금 중 자율지급분인 3천만원을 A급(3명)에게는 600만씩, B급(2명)에게 480만원, C급(1명)에게는 240만원씩 분배했다. 균등분배 몫까지 포함하면 A급 2천600만원, B급 2천480만원, C급이 2천240만원이다. 3위팀 제일화재와 4위팀 울산디아채는 자율분배 몫을 감독까지 포함하여 균등분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세돌 상금 5억원 돌파

2005년 최다 상금액 경신 초읽기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세돌(25) 9단이 상금 순위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20일 "이세돌이 올해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5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LG배(상금 2억5천만원)와 삼성화재배(2억원)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지난달까지 4억7467만원을 벌어들였던 이세돌은 이달 들어 250만엔(한화 2천400만원)이 걸린 TV 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했다. 또 후지쓰배 8강전 상금으로 800만원을 확보하면서 상금 수입을 총 5억767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전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난해 상금액(5억7800만원)의 88%를 확보한 이세돌은 2005년에 기록했던 자신의 연간 최다 상금액(6억143만원)을 올해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활한 이창호 올 첫 '30승 고지'

이창호 9단이 한국기원 프로기사들 중 올 첫 30승 고지를 밟았다. 〈표 참고〉 광주 Kixx의 1지명자인 이창호는 지난 12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에서 경북 월드메르디앙의 유창혁 9단에게 177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30승을 채웠다.

이창호는 연초부터 15연승 행진을 펼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지난해 54승31패(승률 63.53%)의 성적을 거둬 다승과 승률 부문 '베스트 10'에도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이창호는 현재 승률 부문에서도 83.33%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지난 7일에는 제21회 후지쯔배 8강전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올랐다. /오광록기자 kroh@

다승 베스트 5

순위	이 름	전 적
1	이창호 9단	30승 6패
2	박정상 9단	29승 8패
3	최철한 9단	27승 8패
	백홍석 6단	27승 10패
5	이세돌 9단	26승 8패
	목진석 9단	26승 15패
	김승재 초단	26승 13패

〈2008. 1. 1~6. 12 현재〉

'영환도사'도 入神

김영환, 오규철 꺾고 9단 승단

프로기사 김영환이 '바둑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入神)'는 9단에 등극했다. 또 김주호·강동윤도 8단으로 승단했다.

한국기원은 20일 "기원 규정에 따라 꾸준히 성적을 낸 9명의 프로기사의 단수를 올렸다"고 밝혔다.

김영환은 지난 3일 열린 제52기 국수전 예선 1회전에서 오규철 9단에게 승리하며, 입단 21년 만에 9단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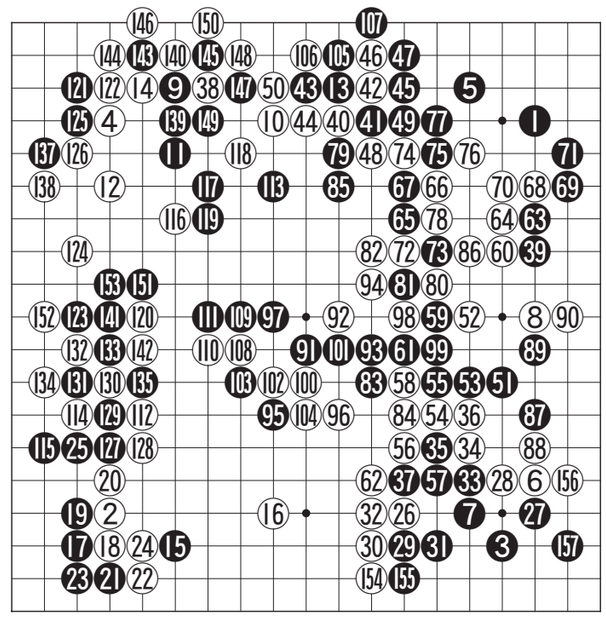
지난 1970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환 9단은 1987년 7월 연구생 2기로 입단했으며 2005년 8단으로 승단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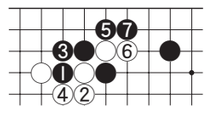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김광식 관록의 승리

2회전 2국 총보 (1~158)

白 김광식 5단 (주 송림) 黑 표정채 5단 (빛고을 교사회)





〈참고도〉

이 바둑은 우승 후보이자 역전의 강호인 김광식 5단을 맞아 표정채 5단이 얼마나 선전을 해주느냐가 관심사항이었다. 그러나 표 5단은 상대의 명성에 눌려서인지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패퇴해 역부족임을 절감한 한판이 되었다.

초반에는 표정채 5단이 발빠른 포석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상변에서 백이 42로 끊어왔을 때 '참고도'처럼 흑 1로 끼워넣고 5로 아래에서 단수치지 않은 것이 무거워서는 일찌기 대세를 잃게 되었다.

또 우변의 접전에서 흑 87과 백 88의 교환을 일찍 해두지 않아서 바꿔치기 할 기회를 놓치고 중앙 흑 대마가 하염없이 쫓기게 돼 승부가 결정되고 말았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흑에게도 몇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든 것은 상대의 명성을 의식하여 반전무인의 자세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승리로 김광식 5단은 쾌조의 2연승으로 우승가도를 질주하고 있고 표정채 5단은 1승1패를 기록하여 앞으로 분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백 158 수 끝, 백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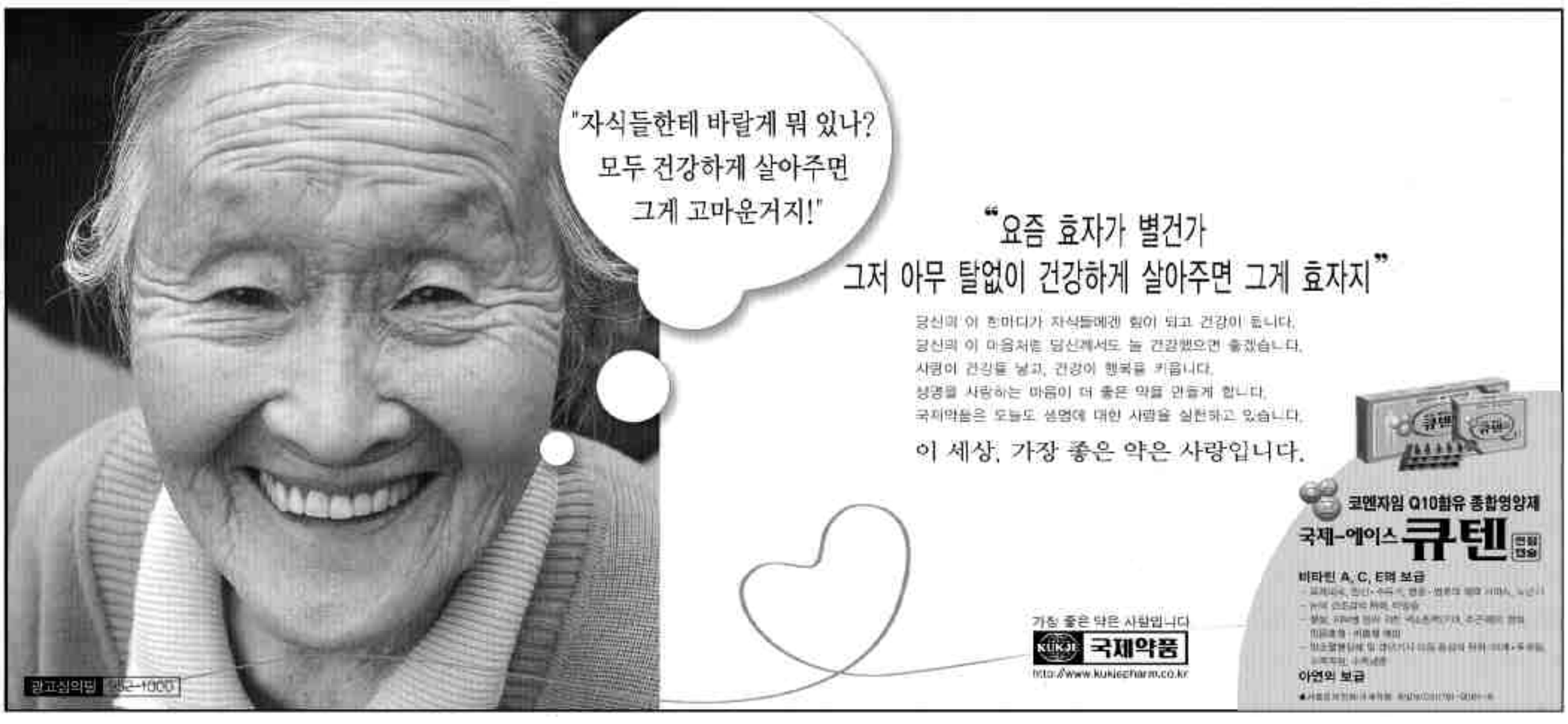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NAN 엘도라도리조트

조훈현 물가정보배 첫승…결선 진출엔 실패

조훈현 9단이 제4기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조훈현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홍성지 6단을 280수 만에 4집반승으로 꺾었다.

이로써 1승2패를 기록한 조훈현은 결선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했다. 각 조 1, 2위가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하게 되는데 A조는 현재 홍성지가 먼저 티켓을 따냈다. 같은 조의 이세돌 9단은 강지성 7단을 꺾어야만 진출할 수 있다.

B조는 이창호·유창혁 9단, 백홍석 6단이 결승행을 다투고 있다. 총 16명의 기사가 랭킹 순위에 따라 대진을 추첨하는 본선 리그전은 4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진행한다.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